

광주형 일자리 성공 관건은 3400억 자본조달

한은 광주전남본부·조선대 운상용 교수 세미나서 주장 현대차 의지 부족·노조 비협조 가장 큰 위협 요인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3400억 원 대에 달하는 외부 자본 조달과 동일 업종 평균에 맞춘 임금수준 상향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규직 1000명 이외 추가 고용은 비용 부담으로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며 다른 기업들이 ‘빛그린국가 산단’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부정적 시각도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28일 오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열린 ‘2019 지역경제 세미나’에서 운상용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지역 특성에 기반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추진전략 및 과제’에 담겼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운 교수와 함께 지난 6월21일~11월20일 6개월 동안 ‘광주형 일자리’의 주요 내용과 성공적인 추진 전략과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운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는 유례가 없

었던 지역자립형 노동시장 혁신운동으로서 사회적 가치가 높지만, 실패할 경우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 구미, 밀양, 강원, 군산, 울산 등 지자체가 ‘광주형 일자리’ 후발주자로 나섰다. 지역상생형이라기 보다는 투자촉진형 일자리로 분류된다며 다른 지역과 선을 그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우려는 (주)광주글로벌모터스의 ‘수익 전략’과 ‘지속가능성’이다.

사업의 강점·약점·기회·위협 요인을 들여다 본 ‘SWOT’ 분석에서는 가장 큰 위협으로 현대차의 책임경영 의지 불확실과 노조의 비협조를 꼽았다. 뒤를 이어 ▲하청 부품산업 등 지역 산업 기반 미비 ▲자동차시장 포화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수요 기반 약화 등도 거론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현대차·광주은행 등이 출연하기로 하면서 2300억원 규모 사업비는 확보됐지만 아직 3454억원 규모 외부 투자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만 KDB산업은행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전액 대출할 계획이 알려졌다. 투자액 상당 부분은 공적자금인 상황이다. 향후 사업 운영과 수익 창출을 위한 재원, 수익 배분 및 상황, 광주시의 복지 프로그램 운영 재원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운 교수는 “현대차의 의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책 추진의 주도권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운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노·사·민·정 측 21명을 설문한 결과, ‘광주형 일자리’ 추진과제로 ▲직무급 등 새 임금체계 구축 ▲생산성 향상에 기초한 근로시간 탄력적 조정·적용 ▲사회적 합의 기반 노·사 책임 경영 ▲결함교섭을 통한 원·하청 관계의 개선 등으로 중론이 모아졌다.

운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의 임금체계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연공급’ 제도를 지양하고,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GM과 같이 직무급적 원리를 따라야 한다”며 “논의된 적정 임금을 향후 높은 증가율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정부 지원 반약, 물류비용 절감 가능성·접근성 부족, 높은 분양가(임대료), 기술인력 교류 부족 등의 이유로 기업들이 광주시 광산구 빛그린국가산단단지호 향후 이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박용희 광주전남연구원 실장은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 행복주택 보급 사업 등과 연계해 인력 확보·기업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명수 광주상공회의소 본부장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한 복지시책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외적인 지원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경기 여전히 어둡다” 광주·전남 중기 조사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은 12월 기업경기가 개선은 되겠지만 여전히 어두울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 192곳을 대상으로 12월 경기전망조사(이하 SBHI)가 전월보다 4.6포인트 상승한 90.6으로 나타났다.

SBHI가 100 이상이면 기업경기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전월(89.0) 대비 5.7포인트 상승한 94.7, 전남은 전월(80.7) 대비 2.9포인트 상승한 83.6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월(83.1)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84.3이었고, 비제조업은 전월(88.3) 대비 7.5포인트 오른 95.8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 전망(83.9→87.5)과 수출 전망(85.4→89.1), 경상이익 전망(80.6→81.3), 자금사정 전망(75.6→76.0), 고용수준 전망(101.0→102.3) 등이 전월보다 상승했다.

경영 애로 사항은 ‘내수부진(68.8%)’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업체 간 과당경쟁(45.3%)’, ‘인건비 상승(40.6%)’, ‘자금 조달 곤란(28.6%)’, ‘판매대금 회수지연(27.6%)’ 순이다.



순천 효산고서 ‘창업캠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문환)은 28일 순천 효산고에서 광주·전남지역 비즈니스 선진학교 학생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실무능력 배양과 아이템 경진대회 대비 등 실천창업을 위한 ‘창업캠프’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중기청 제공>

광주 에어가전 9개사 뭉쳐 첫 해외진출

싱가포르업체와 200만달러 계약
광주지역 중소 에어가전 기업 9개사가 공동으로 해외 진출했다. 가전기업이 공동으로 수출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한국공기산업진흥회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현지 헬스케어 가전 전문기업 dna사와 에어가전 전문 판매 회사 AOM과 각각 100만 달러 규모의 공동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해외 진출 기업은 다케이씨, (주)감성, 대

영전자씨, (주)니아담채, (주)인아, (주)아이디에스, 티아이피 인터내셔널씨, 누리오씨, (주)이앤 등 광주지역 가전기업 9개사다.

이들 기업은 공기청정기, 해동 송풍레인지, 신발살균 건조기, 줄음 억제 차량용 공기정화기 등 10개 제품을 수출한다.

공기산업진흥회는 AOM과 사후관리(A/S)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싱가포르에 처음 설치되는 에어가전 공동 A/S 센터는 필리핀·말레이시아 등에 직영 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AOM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남방 국가

로의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기산업진흥회는 지난 21일 광주시 북구 전자부품연구원 내에 사무국을 마련, 공식 출범했다. 다케이, 위니아담채, 오텍 캐리어, 하영전자 등 56개 기업이 회원사로 있다. 앞으로 공기 관련 신제품 발굴과 수출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 공동 표준·인증체계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가 공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의 견수령 장구 역할을 하며, 정책 수립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18.60 (-9.25)	↓ 금리(국고채 3년)	1.43 (-0.03)
↓ 코스닥	640.18 (-7.21)	↑ 환율(USD)	1179.00 (+1.80)

해외직구 환급금 1년 새 31.4% 증가 광주세관, 건당 평균 10만원...의류·신발·가방 순

블랙프라이데이 맞춰 환급절차 안내
미국의 최대 세일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의 해외직구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직구 환급금에 따른 환급절차 안내하고 있다.

28일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민이 해외직구 반품으로 되돌려 받은 환급금은 매년 증가해 올 10월누계 환급금은 전년동기대비 31.4% 상승한 5300만원이다. 건당 평균 환급액은 1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42.7%), 신발(25.2%), 가방(22.9%), 자전거(3.6%) 순으로 패션제품이 상위를 차지했다. 특히 신발반품에 따른 환급액은 전년 대비 67.0%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영국(61.5%), 독일(23.3%), 미국(6.1%), 홍콩(4.2%) 순으로 유럽국가가 전체 환급액의 89.6%를 차지했다. 특히 독일은 환급액이 전년 대비 78.7% 늘어났다.

광주본부세관은 29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 반품에 따른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해외직구반품 환급을 위해서는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을 통해 발급받은 신고인 번호를 이용해 개인이 직접 수출 신고하고 특송업체 및 우체국 등을 통해 선적한 후 환급신청하면 된다.

다만 과세가격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반품운송장, 환불영수자료 등 원판매자에게 반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수출신고 없이도 환급신청할 수 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한 물품을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할 경우에 개인회주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절차를 통해 수입당시 납부한 세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며 “개인회주 직접 수출신고와 간소화 환급신청 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통해 해외직구반품시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산업전시회 3640만 달러 수출계약

18개국 120명 바이어 참가
일·페루 업체 등과 MOU
한국광산업진흥회는 27~28일 이틀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제광산업전시회’에서 수출계약 3640만 달러의 성과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미주, 유럽, 아시아, 중동 등 18개국에서 120명의 바이어가 참가해 국내 광융합산업 업체들과 392건, 1920억원의 수출계약 실적을 올렸다. 글로웁, 나뉘테크, 다운씨앤씨, 지오씨 등은 429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성과는 광산업진흥회가 해외 마케팅센터를 통해 참가 바이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한 결과로 평가된다.

전시회 기간 동안 태국 람차방시 부시장과 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DEPA)과 체결한 람차방시 공인 내 스마트시티 가로·보안등 시범설치 실증사업 협약도 큰 성과로 꼽힌다. 광산업진흥회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태국 현지 실사를 겸한 실증 초청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일본 에너지효율단체(ECOFA)와 제

결한 ‘한-일 에너지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페루 3개 지역 대표단과 맺은 업무협약은 지역 기업의 우수한 광산업 제품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에서는 광융합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홍보관’ 운영을 통해 지역 대학과 고교생들의 채용도 적극 지원했다.

광산업진흥회는 내년 11월 19~20일 열릴 ‘2020 국제광산업전시회’ 규모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2개 홀에 150개사, 250개 부스 규모로 외형을 키우고,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클라우드·인공지능(AI)·로봇의 흐름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광융합 제품에 초점을 맞춰 전시장을 구성할 계획이다.

조용진 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광주시가 내년부터 더 많은 예산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전시회 규모를 더 키울 예정”이라며 “광주기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과 공격적 해외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 / 공유 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